

이재명·이해찬 회동...“통합·공정 공천으로 총선 승리”

민주당 총선 전략·혁신 방안 논의...“선거 이겨 민생 되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해찬 상임 고문을 만나 총선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경제 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쭙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 체제로) 큰 승리를 이끌어 냈는데,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쪼록 미력이나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 고문은 애초 지난 4일 만나려 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여파로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이 고문은 “이 대표가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 하느님 뜻이라 생각한다”며 “생활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이 고문의 이날 회동은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한 공천 관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계파간 공천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천 학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이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인사가 당 정계 조치와 성 비위, 기소 등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 심사서 적격 판정을 받아 검증 과정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비명계 의원을 겨냥한 ‘진명(진이재명)계 자격 출마’ 논란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정한 공천이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당에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킨 이 고문과 만난 것으로 해석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더 하나 되는 통합의 길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kroh@kwangju.c.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회동한 뒤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새 연대 방식 모색해야”

개혁신당 초대 대표로 선출

이낙연 “제3지대 함께해야”

개혁신당 사령탑을 맡은 이준석 대표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고면서도 각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당이 창당한 다음 날 합당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개혁신당 초대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을 향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식의 장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의 총선 전략을 ‘빅텐트’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대안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한 방안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등의 3가지 연대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3가지를 말했지만, 선호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세력과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지도자들과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외견상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논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제3지대 통합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광주시 서구 HEXA 세미나실에서 지역 청년들과 미니 토크쇼를 열고 “지금 양당은 자기 진영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라며 “진영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로, 투쟁만 일삼는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부도덕한 정치를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3지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kr·연합뉴스

尹,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 공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지역 정주하는 정책”

대통령실 “늘봄학교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초 첫 시범지역이 발표되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이 협력한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필수요인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각 지역별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진행돼 3월 초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차 공모는 5월부터 시작돼 7월 중 지정된다.

/연합뉴스

한총리 코로나19 확진

내일 각의 등 일주일 일정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제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사실상 무산

25일 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

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